

地 理 教 育

鄭 瑋 鎬

1. 序 言

8·15 光復後부터 現今까지의 地理教育은 1960年代 初期까지는 主로 中等教育이 中心이되어 各級學校의 教育課程의 改編이 地理教育의 方向을 決定하였던 것은 主의 사실이다. 그러나 필자는 中等學校의 地理教育에 한정하지 않고 1960年代에 들어서면서 부터 各大學에 新設된 地理學科 또는 社會生活(教育)科內의 地理專攻(以後 便宜上 地理科로 使用키로 함)을 中心한 大學에서의 地理教育 그리고 이들 各大學의 活動, 地理教育에 關係된 活動 및 各種 研究業績을 中心으로 概括的으로 整理하였다. 本文中에 引用된 研究活動이나 業績등은 註로서 末尾에 掲載하였다.

2. 教育課程과 中等學校 教育의 變遷

(1) 1950年代의 教育課程과 地理教育

光復後 教育界는 日帝植民地 教育의 殘滓를 清算하고 새로운 民主教育의 基盤을 수립하는데 노력하였다. 1945年 11月 4日 各界代表 100여명으로 教育審議會를 構成하고 第1回 會議을 開催하였다. 1946年 3月 7日 全體會議에서 韓國教育 전반에 관한 建議書를 議決하여 이를 美軍政 當局에 提出하였다. 당시 編修局에서는 教科書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때이므로 各級 學校에 教授要目을 制定하여 시달 하므로서 指導內容의 統一을 기하도록 하였다. 이때, 美國에서 1920年代에 탄생한 social studies를 導入하여 社會生活科를 創設하였다¹⁾. 그러므로 1946年 12月 7日로서 美軍政廳의 文教部가 教授要目を 發表하여 社會科가 指定되었던 이른바 教育要

目時代에 社會科教育이 實質的으로 成立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48年 政府樹立後 軍政時에 制定된 教育課程의 改正에 着手하였으나 1950年의 6·25動亂으로 중단되었다가 1952年 다시 委員會를 構成하여 協議한 후, 各級學校의 教育課程 時間配當 基準을 作成하여 1954年 4月 20日 文教部令 第35號로 公布하였다. 한편 文教部는 다시 各教科委員會를 構成하고, 各科 教育課程을 確定하여 1954年 8月 1日 大韓民國의 教育法에 依하여 最初로 教育課程이 公布되었다.

이에 의하면 中學校 社會生活科 課程은 地理·歷史·公民의 3部分으로 區分 作成되었다. 여기에서 中學校 社會生活科의 地理部分은 總時間이 140時間이고, 學年別로는 第一學年 35時間, 第二學年 70時間, 第三學年 35時間이 있다. 이때의 地理學習內容은 ①우리 나라, ②아시아의 여러 지역, ③유럽과 아프리카, ④아메리카와 태평양의 4單元으로 構成되었다. 地理의 學習目標은 6個項을 提示하였는데, 그 중 重要的 것은 「自然環境에 適應하고 有效하게 利用하여 生活의 改善과 經濟生活의 向上을 圖謀하도록 한다」라고 한 점과 「偏僻된 愛國心에 사로잡힘 없이 다른 地方 및 다른 나라 사람들과 協助 相助하는 精神을 기르게 한다」라고 한 점이다. 即 自然環境을 이용하여 우리의 生活을 改善하고, 더 나아가서 번영된 國家를 建設하려고 하였으며 地域感情을 없애고 國際理解 增進에 이바지하는 人間像을 養成하려고 한 점이다. 그러나 地理科의 指導目標나 指導上의 留意事項과 各 單元의 內容構成間에 有機的인 關聯性과 結合性이 欠如되어 있고, 指導內容이 斷片的인 知識의 注入에 偏重한 나머지 지나친 項目의 羅列에 그치고 있다. 또한 問題解決을 위한 綜合的인 努力이 欠如되고 地域區分이 지나치게 소홀히 다루어진 것 등의 몇가지 問題點이

있다.

高等學校의 社會科는 一般社會, 道德, 國史, 世界史, 地理의 5個分科로 構成되어 있다. 이 5個分科 中에서 一般社會, 道德, 國史의 3個分科는 모든 高等學校의 必須이고 나머지의 世界史와 地理는 選擇科目으로 되었으므로 地理科目은 一般的으로 輕視된 느낌이 있다. 總 105時間의 配當을 1學年 혹은 2學年에서, 또는 1,2學年에 걸쳐서 指導하도록 되어 있다. 學習內容은 ①人間과 自然과의 交涉, ②世界各地의 自然과 人間生活, ③各地域의 食料와 衣料의 生産과 需給, ④近代産業의 發達, ⑤世界的 結合等 5單元으로 構成되었다. 이의 特色을 指摘하면, 指導要領과 留意事項이 全體的 統一性 또는 綜合性이 欠如되어 있었고, 組織的이 못되며, 大體的으로 環境論의 立場에 치우쳐 있었다. 그리고 社會科目中에서 選擇科目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지로는 各 高等學校에서 地理科目은 필수와 같이 擇하였다.

(2) 1960年代의 教育課程과 地理教育

1958년부터 改編에 着手하여 1963年 2月 15日 文教部令 第 120 號로 公布된 것이 1960年代의 教育課程이다. 本 教育課程은 그 內容에서 「自主性·生産性·有用性」을 強調하였고, 또 그 組織에서는 合理性을, 運營에서는 地域性을 특히 強調하였다.

中學校의 社會科는 舊教育課程에서는 公民·地理·歷史가 各學年을 段階的으로 體系化되었던 것을 本 課程에서는 學年別로 地理·歷史·公民을 中心으로 하여 社會科의 本質을 살리는 綜合的 單元으로 設定하였다. 即 中學校에서는 地理·歷史·公民이란 科目名 代身 1學年은 地理中心의 「社會Ⅰ」, 2學年은 歷史中心의 「社會Ⅱ」, 3學年은 公民中心의 「社會Ⅲ」으로 綜合되어 있다.

中學校 社會科의 時間配當 基準은 週當 1學년이 3~4, 2學년이 3~4, 3學년이 2~4時間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地理部分은 1學年에서만 學習을 하고 中斷되었다가 高等學校에 進學하여서 다시 學習하게 된 點은 커다란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社會Ⅰ은 ① 郷土生活과 郷土의 諸問題, ② 우리나라 諸地域의 自然環境과 生活, ③ 우리나라의 自然과 生活, ④ 世界 諸地域의 自然과 生活, ⑤ 世界的 自然과 生活, ⑥ 世界와 우리나라 등의 6單元으로서 指導內容의 構成이 組織的이고 具體的이며, 郷土에서 시작하여 各地方, 우리나라, 世界로 展開한 것 등은 特點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教育課程의 改

正趣旨에서는 教科內의 科目區分을 止揚하여 綜合指導의 效果를 높이도록 從來의 地理·歷史·公民代身 社會Ⅰ, Ⅱ, Ⅲ으로 內容을 刷新한다 하였으나, 實際로 그 內容構成은 學年別로 完全히 分離되어 있어 綜合指導의 效果는 名目뿐이며, 오히려 學習이 學年別로 絶斷되어 있다.

高等學校의 教育課程은 單位制에 의하고, 地理科는 「地理Ⅰ」과 「地理Ⅱ」로 區分하여 各各 6單位로 時間이 配當되어 있다. 地理Ⅰ은 共通必須科目으로 系列의 區分없이 履修하여야 하며, 地理Ⅱ는 選擇이기는 하지만 必須選擇이므로 必須나 마찬가지여서 1950年代에 比하여 地理科目의 比重이 增大되었다.

地理Ⅰ의 指導內容은 ① 우리나라의 自然環境, ② 우리나라의 産業(1), ③ 우리나라의 産業(2), ④ 國土의 開發과 管理, ⑤ 우리나라의 聚落과 人口, ⑥ 우리나라 各 地域의 特色, ⑦ 우리나라와 世界와의 關係 등 7單元으로 構成되어 있고, 地理Ⅱ의 指導內容은 ① 世界的 自然環境, ② 世界的 人類集團, ③ 아시아의 自然과 生活, ④ 유럽 및 아프리카의 自然과 生活, ⑤ 아메리카 및 오세아니아의 自然과 生活, ⑥ 世界的 經濟活動, ⑦ 世界와 우리, (附)地圖 등 7單元과 附 1로 構成되어 있다. 地理Ⅰ, Ⅱ 共히 系統學習을 通하여 概念中心, 問題中心으로 單元을 構成하는 것이 바람직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本課程의 最大의 特徵이라면 高等學校 教育에서 地理科目의 比重이 增大된 걸이라고 지적할 수 있겠다.

(3) 1970年代의 教育課程과 地理教育

1963年 公布된 教育課程이 實施된지 10餘年이 經過하였고, 內容에도 많은 變化가 일어나서 教育의 目標과 內容의 再檢討 및 國民教育憲章 理念의 具顯을 基本方向으로 教育課程 改編에 着手하여 1973年 8月 31日 文教部令 第 325 號로 中學校 教育課程, 1974年 12月 31日 文教部令 第 350 號로 高等學校 教育課程이 公布되었고, 新課程에 依한 教育은 中學校단이 1974年 新學期부터 施行되고 있으므로 中學校 課程만 言及하기로 한다.

中學校 社會科의 時間配當 基準은 社會Ⅰ 105(3), 社會Ⅱ 70~105(2~3), 社會Ⅲ 70~105(2~3)로 舊教育課程에 比하여 減少된 셈이다. [()안의 숫자는 週當 配定時間임]. 그러나 舊課程에서 歷史內의 國史部分이 獨立된 教科로 分離되어 2~3學年에서 週當 2時間씩 學習하게 된 것을 勘案하던 것과

별 차이가 없는 셈이다.

地理部分인 社會 I의 指導內容은 ① 郷土와 社會生活, ② 우리나라 各地域의 生活, ③ 우리나라의 自然과 生活, ④ 世界 各地域의 生活, ⑤ 世界의 自然과 生活, ⑥ 우리들의 當面課題 등 6單元으로 構成되어 있다. 本課程은 舊課程에 비하여 組織的이고 包括性이 강한 長點이 있다. 그런데 1960年代 以來 新·舊教育課程은 地理·歷史·公民의 部分別을 止揚하고 綜合된 社會科로 學習效果를 높이고자 하고 있으나 實際에 있어 教科書의 編纂이나 一線教師가 이에 適應하기에 어려운 實情에 있어 本教育課程도 名目上의 綜合이고 內容은 여전히 1960年代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므로, 차라리 1950年代의 內容처럼 地理·歷史·公民으로 區分되 教科間의 縱的·橫的인 聯關性을 強調하는 方向이 더욱 效果의 일 것으로 생각된다.

光復後부터 現在까지의 教育課程을 全般的으로 一括하였는데, 1960年代와 1970年代에 改正된 中學校 課程은 1學年에서만 地理教育이 施行되고 2年間 中斷되었다가 高等學校에 進學하여서 다시 施行됨으로 學生들의 地理科目에 대한 輕視 風潮와 아울러 學校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一般的으로 中學校의 地理教師는 1學年 擔任만 맡게되는 不作用도 있는 實情이다. 한편 高等學校에서는 1960年代의 改編에 의하여 必須와 選擇科目으로서 되었으나 絕對時間數의 增加 및 教科目으로서의 比重이 必須와 選擇으로 됨에 따라 1950年代보다 훨씬 活氣를 더고 行하여지고 있다. 그러나 筆者뿐 아니라 모든 地理教育에 중사하는 사람들의 希望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大學入學試驗에 高麗大學校·延世大學校·西江大學校 등 各大學에서도 地理科目이 入試出題科目으로 된다면 더욱 活기를 띄게 될 것이다.

3. 大學에서의 地理教育

光復 直後 京城女子師範學校의 地歷科와 京城師範學校의 社會科學科가 統合되어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地理科로서 最初로 創設되었고, 이어서 慶北大學校 師範大學에 地理科가 設立되어 中等學校 地理教師를 養成하기 시작하였다. 1950年代에 이르러서 梨花女子大學校 師範大學에 社會生活科(地理·歷史·社會 專攻), 文理師範大學(現 明知大學 前身)에 社會生活科(地理·歷史·社會 專攻), 慶熙大

學校 文理科大學에 地理學科, 弘益大學에 地歷科, 建國大學校 文理科大學에 地理學科, 檀國大學에 地歷科, 公州師範大學에 地理科,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에 地理學科가 各各 設立되었으며, 當時 中等學校 教師를 養成하기 위한 各大學附設의 中等教員養成所에서도 地理教師를 養成한 일도 있었다. 1960年代 前半에 이르러 弘益大學, 文理師範大學 및 檀國大學의 諸科가 廢科된데 反하여, 慶北大學校 文理科大學에 地理學科가 設立된 것을 비롯하여 이어서 首都女子師範大學에 社會教育科(地理·歷史 專攻)가 設立되었고, 1960年代 後半에 東國大學校 師範大學에도 社會教育科(地理·歷史 專攻)가 設立되었다. 한편, 1970年代에 들어와서 誠信女子師範大學에 社會教育科(地理), 祥明女子師範大學에 社會教育科(地理)가 設立되었고, 地方에서는 清州大學에 社會教育科(地理·歷史 專攻), 清州女子師範大學에 社會教育科, 大邱의 曉星女子大學에 社會教育科, 그리고 釜山の 釜山女子師範大學에 地理學科가 設立되어 現在 全國의 15個學科가 있다. 이들 各大學은 非師範系 大學이라도 教職科目을 履修하여 中等學校 教師資格을 取得할 수 있고, 또 實際로 이들 거의 대부분이 교사로 나가고 있어 現今에는 中等教育을 擔當할 教師養成에 質的·量的으로 큰 變化를 가져왔다.

한편, 大學院 教育도 變化를 가져와서 高等教育을 擔當할 指導者를 多數 排出하고 있다. 即 서울大學校의 大學院을 비롯하여 慶北大學校 大學院, 梨花女子大學校의 大學院 및 慶熙大學校 大學院, 建國大學校 大學院 등에 1950年代부터 각기 地理學科가 設立되었고, 1960年代 中葉부터 서울大學校·慶北大學校·梨花女子大學校·高麗大學校 등의 教育大學院에 地理教育專攻科가 設立되어 目的한 대로 中等學校 教師의 質的向上 및 高等教育 擔當者를 養成하고 있다. 그런데 한가지 커다란 問題點으로서 指摘할 것은 大學院에 博士學位 課程이 設置된 곳은 慶熙大學校 大學院 뿐이고 서울대학교에서는 1976년 부터 設置되기로 되어 있다. 其外의 大學院은 이의 課程이 아직 없어 他學間 分野와 比較할 때 落後된 느낌을 갖게 한다.

大學에서의 教育課程은 各大學의 專任教授 및 大學內의 事情 등에 의하여 各樣各色으로서 이의 統一을 기하기는 어렵겠지만 專攻必須 教科目만이라도 相互協議하여 教育을 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위한 協議體의 構成을 提案하는 바이다.

各大學에서의 研究活動은 各學科에서 學術雜誌²⁾의 發刊, 심포지움 및 세미나³⁾의 開催 등으로서 알 수 있다. 學術雜誌의 發刊에 있어서 特記할 事項은 우리 나라에서 「地理」라는 題字가 붙은 最初의 雜誌가 大韓地理學會보다도 앞서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地理科에서 學生中心으로 出版되었다는 事實이다. 各大學에서 春秋 祝祭期間에 行하는 招請講演과는 달리 主題를 定하고, 그에 대한 地理教育에 關한 심포지움이 首都女子師範大學 社會教育科에서 試圖된 事實과 慶熙大學校 文理科大學 地理學科에서 大學에서의 地理教育에 關한 主題로 開催한 세미나 및 서울大學校 教育大學院 地理學研究會에서 一線 教師의 큰 관심거리인 大學入試에 關한 主題로 開催한 세미나 등은 大學의 活動에서 注目할만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4. 地理教育을 위한 研究活動과 業績

1960年初, 地理教師의 親睦 및 地理教育을 發展시킬 目的으로 韓國地理教育會가 組織되어 「地理」라는 雜誌 2號까지 出刊한 바 있으나 1965年 韓國地理教育會와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地理教育會(師範大學 地理科 同窓中心)와의 統合을 協議⁴⁾함으로써 이의 活動은 中斷되었다.(實際로는 이의 統合體는 大韓地理學會에서 主軸이 되어 活動하고 있다.)

慶北大學校 師範大學 地理科 同窓會에서는 「地理教育」이라는 雜誌를 發刊하면서 地理教育 分野에 크게 공헌하고 있으며, 釜山·慶南의 地理教師 中心으로 組織된 慶南地質地理學會가 近來 釜山慶南地理研究會로 改編되어 「會誌」라는 雜誌를 發刊하고 있다.

한편 地理教育의 改善 및 發展을 目的으로 1973年 韓國地理教育學會가 創立되어 春秋로 研究發表會를 開催하고, 學會誌 「地理學研究」를 1973年 12月에 創刊한 바 있다.

大韓教育聯合會 傘下 韓國社會科教育研究會에서도 研究誌인 「社會科教育」을 通하여 地理教育에 대한 研究活動을 하고 있다.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教育會에서 1961年 5月부터 隔月刊으로 發刊되던 「中·高校學習指導資料」에 數篇의 論文⁵⁾이 發表되어 一線 教師들에게 좋은 教授資料로 提供된 바 있었고, 大韓地理學會에서

는 地理教育에 도움이 될 수 있는 內容을 中心으로 「地理學會報」⁶⁾가 本會의 教育部 主管으로 1969年 創刊되어, 現在까지 14號를 發刊하였다.

30年間의 研究業績을 教授法, 地理教育의 一般論, 教材分析, 教材用 圖書의 著述을 中心으로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地理教授法의 改善을 위한 論文이 金蓮玉(1955)⁷⁾에 依하여 最初로 發表되었는데, 이는 教授法의 改善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地理教育分野에서 最初라는데 큰 意義가 있고, 더우기 당시 우리 나라에 派遣되었던 美國 教育使節團의 協力으로 pilot course에 依한 教授法 改善을 實際로 實驗한 結果 報告論文으로서 教育界에 큰 관심을 던져준 것이다. 社會生活科와 地理教育의 研究가 金相吳(1960)⁸⁾, 崔外洪(1962)⁹⁾, 視覺教材의 製作에 研究가 元慶烈(1963)¹⁰⁾, 大學과 中學校 地理教育의 研究가 徐贊基(1965)¹¹⁾에 依하여 發表되었다. 徐贊基의 研究, 即 「大學과 關聯된 中學校 地理教育의 問題點」이란 論文은 設問紙에 依한 集計 結果를 檢討分析한 것으로서 提起된 問題는 教科書에 關한 問題, 地圖帳에 關한 問題, 學習方法에 關한 問題, 學習資料에 關한 問題, 入試에 關聯된 問題, 커리큘럼에 關한 問題, 教師研修 問題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하여는 一線 教師, 大學, 教科書 및 地圖帳의 著者, 文教當局 其他 關係研究機關 相互의 緊密한 協助下에서 解決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위한 研究組織體의 結成을 提議하고 있다. 地理教育의 問題點에 對한 研究가 李燦(1966)¹²⁾, 秋誠求(1967)¹³⁾, 美國에서의 地理教育改革에 關한 研究와 地理教育의 改革에 關한 研究가 李燦(1968, 1969)¹⁴⁾에 依하여 發表되었다. 李燦의 研究 中에서 特히 「地理教育의 改革運動」이란 論文은 美國에서 일어나고 있는 HSGP에 의한 新地理教育課程 運動과 이의 韓國에서의 적용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地理教育에 있어서의 基本概念으로서 人間과 自然·地域·空間·地學·分布·變遷·縮尺·地圖化 등을 提示하였다. 끝으로 地理學習의 形態와 適性·地理學習과 評價의 方法 등을 教育目的 分類에 의하여 細分하고 그 概念을 뚜렷이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本論文은 地理教育의 改革을 爲하여 教育學的인 理論을 철저히 適用한 질이 특색이다. 中學校 地理教育에 關한 研究가 任德淳(1969)¹⁵⁾, 特別活動을 通한 研究가 姜信浩(1969)¹⁶⁾에 의하여 發表되었다. 姜信浩의 「地理班의 特別活動을 通한 國際理解」란 研究는 地理班 特別活動의 實驗의 運

營, 教育課程의 檢討分析, 資料蒐集 및 分類, 地理意識 test의 實施 및 分析, 國際理解 知識 및 態度 test의 檢査 및 分析, 國際理解의 意識水準의 向上關係와 매스콜의 影響關係究明, 判斷 動搖 傾向의 意識 現實化 如否, 國際理解度 形成에 따르는 內的要因의 究明 等を 主要內容으로 이루어진 論文으로서 中高等學校의 特別活動을 中心으로는 最初로 研究된 것이다. 國民學校 地理教育의 研究가 任德淳(1970)¹⁷⁾, 趙光濬(1970)¹⁸⁾에 의하여 發表되었고, 開化期와 日帝時代의 地理教育에 대한 研究가 張保雄(1970, 1971)¹⁹⁾에 의하여 發表되었다. 張保雄의 「開化期의 地理教育」이란 研究는 韓國 地理教育史에서 중요한 時期인 開化期의 地理教育을 甲午更張을 中心으로 整理한 重厚한 論文으로서, 近代 地理教育의 胎動, 甲午更張 以後의 地理教育에서는 各級學校의 地理教育課程과 地理教科用 圖書의 編纂을 言及하고, 開化期의 各種 地理教科用 圖書에서는 韓國地誌 教科用 圖書와 萬國地誌 教科用 圖書 등을 解題하면서 整理하였다. 金相昊(1971)²⁰⁾의 「地理教育論 序說」이란 論文도 地理教育 全般에 관한 研究로서 注目할 만한 것이다. 卽 教育課程이 改編됨에 있어 構造化는 어떻게 이룩되어야 할 것인가의 問題 提起로서 地理學의 本質과 方法에 立脚하여 論述하려 하였는데, 주로 地誌에 焦點을 두어 過去의 韓國의 地理教育을 反省하고, 또 앞으로의 바람직한 方向을 摸索하려고 努力한 것이다. 특히 地誌教育의 5가지 問題點을 提示하고, 그들에 대한 實例를 詳細히 列舉한 點은 모든 地理學者나 地理教育 從事者 들은 깊이 吟味·反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學習의 構造化에 依한 授業 및 學習構造에 관한 研究가 金鍾浩(1971)²¹⁾, 洪大善(1971)²²⁾, 地理教室에 對한 研究가 徐贊基(1971)²³⁾에 의하여 發表되었고, 學習指導를 中心한 研究가 張彩圭(1969)²⁴⁾, 教育課程의 檢討研究가 金完鍾(1969)²⁵⁾, 金富植(1972)²⁶⁾, 李清一(1974)²⁷⁾, 教育課程을 中心으로 地理教育의 改善策을 研究한 申圭東(1972)²⁸⁾, 解放後 地理教育의 變遷史에 研究가 芮庚熙(1971)²⁹⁾에 의하여 發表되었다. 그런데 芮庚熙의 論文 「解放後 中高等學校 地理學習의 變遷—教科書分析을 中心으로—」은 副題에서 나타나듯이 教育課程이 改編됨에 따라 編纂된 教科書를 精密分析하여 光復後 地理教育의 歷史를 整理한 勞作이다. 한편 國民學校 教育課程에 따른 地域指導에 관한 研究가 趙光濬(1972)³⁰⁾에 의하여 發表되었고, 公害와 學習活動에 影響의 研究가

朴恒男(1972)³¹⁾, 完全學習에 관한 研究가 李琴周(1973)³²⁾, 評價에 관한 研究가 吳鎬淑(1973)³³⁾, 李恩淑(1974)³⁴⁾ 등에 의하여 發表되었다. 朴恒男의 論文 「서울特別市の 騒音實態와 學習活動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研究」는 公害問題를 最初로 教育分野에 適用한 것으로서 注目을 끌만한 것이었고, 李恩淑의 「高等學校地理 I, II 農業單元의 評價事例」란 論文은 教師가 學生들의 學習效果를 評價하는데 있어서 無誠意한 評價道具(問題)를 作成하여 實施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하여, 本文은 各 概念中心으로 內容을 分析, 行動目標를 選定, 教科內의 檢討 및 教授方法과 教育課程의 改善를 目的으로 研究한 것으로 勞作이라 할 수 있다.

地理教材의 內容과 이의 分析 研究도 多數 있다. 外國地名에 對한 研究가 徐贊基(1965)³⁵⁾, 鄭京淑(1969)³⁶⁾의 것이 있는데, 徐贊基의 「中學校 外國 地理學習을 爲한 適正地名의 研究」는 地名의 適正數와 基本地名을 選定하기 爲하여 教科書의 地名調查에 依한 地名의 平均頻度를 算出하고 設問紙에 依한 地名의 適正數를 算出하였으며, 基本地名의 選定과 地名의 等級을 區分하였고, 끝으로 適正地名의 構造를 種類別·等級別 構造와 洲別·國家別 構造로 區分하여 教科書 著者들의 地名에 對한 格別한 關心과 努力을, 教師는 恒時 批判的 立場에서 教科書를 다루도록 提唱하였는데, 이는 地理教育上 대단히 중요한 문제점을 취급한 研究로 높이 評價되고 있다. 教科書內의 地圖類에 分析 研究가 宋泰鏞(1965)³⁷⁾, 日帝時代에 使用된 教材를 中心한 研究가 張保雄(1969)³⁸⁾, 概念別 教材分析이 李燦外 2名(1969)³⁹⁾, 地理教育과 概念에 대한 研究가 金蓮玉(1970)⁴⁰⁾, 姜信浩(1972)⁴¹⁾에 의하여 發表되었다. 그런데 金蓮玉의 「社會科 教育內容의 構造와 概念에 관한 研究(I)」은 初中高等學校 教科書 改編을 爲한 基礎研究라는 副題로서 研究된 論文으로서 現行高等學校 教材의 概念別 分析, 新聞分析, 概論書分析, 論文分析을 하고, 앞에서 實施한 內容分析을 通하여 地理學의 基本이 되는 몇개의 概念과 이에 따르는 問題點 등을 밝혔는데, 앞으로 地理學習 內容의 構造化, 教育目標의 加味를 通해서 意圖하는 教育內容의 再構成을 이룩해야 할 것을 提唱하였다. 姜信浩의 「地理教育의 基本 概念과 高等學校 學生들의 地理概念에 對한 調查 研究」도 地理教育에서 概念 中心의 教育內容의 構造化가 活潑히 論議되고 있는데 따라, 高等學校 教材內容의 概念分析과 現行 教育課程에 立脚한 授業形態 속에서

學習한 學生들이 地理教育에서 어느 程度 期待하는 概念을 把握하고 있는가를 學力 test를 通해서 調査分析한 論文으로 地理教育上 注目을 끈다. 國民學校 教材의 構造的 研究가 趙光濬(1970)⁴²⁾, 高等學校에서의 政治地理 分野에 관한 研究가 任德淳(1970)⁴³⁾, 學習內容에 分析이 芮庚熙(1971)⁴⁴⁾, 國際理解를 위한 資料單元의 研究가 UNESCO 韓國委員會(1969)⁴⁵⁾, 教材資料로서의 日刊新聞에 관한 分析이 梁美子(1972)⁴⁶⁾에 의하여 發表되었다. 또한 「社會 I」 教科書의 分析이 黃載璣(1966)⁴⁷⁾, 元慶烈(1972)⁴⁸⁾, 朴慶姬(1975)⁴⁹⁾에 依하여, 高等學校 「地理 I」 教科書의 內容分析이 鄭璋鎬(1971)⁵⁰⁾에 依하여 發表되었다. 이어서 黃載璣의 「中學校 社會 I 教科書의 內容分析」이란 論文은 1966學年度부터 檢認定을 받아 使用되고 있는 教科書 8卷 全體를 內容構成·地域區分·地名 및 插畫·圖表·地圖에 關한 分析을 하여 地理教育에 이바지한 바 크며, 元慶烈의 「中學校 社會 I 教科書를 통한 地理用語의 分析 研究」는 우리 나라에서 各種 地理用語의 統一이 完全히 이루어지지 않은 時點에서 用語의 取扱數·表記·表現 等과 用語의 理解度 調査를 實施한 結果로서 教科書內에 너무 많은 地理用語를 使用하고 있다고 指摘하고 있다. 한편, 鄭璋鎬의 「現行 高等學校 地理(1) 自然單元의 內容分析」은 現行 高等學校 地理(1) 教科書 12個 全體를 教科書의 構成, 內容構成에 關한 分析, 插畫·圖表·地圖에 關한 分析, 本文의 內容과 地圖와의 關連度 및 綜合檢討 等으로 研究하였는데, 이에서 教科書 著者들이 教育課程이나 文敎部制定 및 指示事項을 준수하여 할 것, 各種 用語의 早速한 統一에 必要性, 插畫·圖表 등은 必須의인 것을 誠意껏 製作·收錄할 것 등을 提示하고 있다. 끝으로 中等學校 教育內容과 關聯하여 學習內容에 修正을 요하는 問題點에 關한 研究가 權赫在(1974, 1975)⁵¹⁾에 依하여 發表되고 있다. 卽 「韓國의 河川과 沖積地形」에서 一般적으로 中高等學校 教科書에 잘못 記述되어 있는 問題點들을 일일히 例를 들어 지적하고 있으며, 「韓國의 海岸地形과 海岸分類의 諸問題」에서도 後氷期 海面上昇과 海岸地形, 東·西海岸의 地形의 特色, 海岸의 分類 등에서 特別히 一般적으로 取扱되어 온 內容에 大修正이 要求되는 事實들을 例를 들어 指摘하고 있어 앞으로 教科書의 著者나 一線 教師들의 不斷한 努力을 할 것을 일깨워 주는 論文으로 評價되고 있다.

한편 大學教材 및 教育用 書籍의 出刊은 他學問

分野에 比較하여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出刊은 大體적으로 1950年代 後半부터 시작되었고, 1960年代에는 地理教育分野에 書籍이 數種 있었을 뿐이나,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 부터 專門的인 書籍이 出刊되고 있다. 特別히 1975年 8월에 出刊된 「地理科教育」은 地理教育을 爲한 最初의 專門書로서 地理教育 發展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믿어진다.

5. 展 望

以上으로서 光復 30年間に 걸친 地理教育分野를 概括적으로 回顧하여 보았다. 地理教育의 向上을 爲한 筆者 나름으로의 展望을 列擧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中等學校의 地理教育은 教育課程이 左右하는 것이므로, 現行的 社會科로 統合된 中學校 課程을 地理·歷史·公民으로 分離시켜, 1950年代의 教育課程처럼 改編함이 바람직한 地理教育이 實施될 것이고, 地理教師에 對한 地位도 보다 向上될 것이다.

둘째, 地理教育의 研究는 最近 外國의 傾向과 같이 構造化 및 概念中心의 系統的인 方向으로 進行하여야 될 것이다.

셋째, 政府方針인 國民 主體性 確立에 立脚하여 韓國地理를 中等學校에서 重視할 것과 大學課程에서는 教養科目으로 確定토록 努力하여야 될 것이다.

넷째, 各綜合大學校에 地理學科나 地理學의 專攻學科가 多數 增設되어야 겠다.

다섯째, 外國과 같이 地理學者나 地理教育者가 教育行政이나 政府의 各 行政部處에 많이 進出하여 地理學 發展에 貢獻하기를 希望하며,

여섯째, 끝으로 當局과 緊密한 紐帶關係를 맺어 地理教師의 研修機會를 많이 갖도록 努力하여야 할 것이다.

※追而; 1976學年度부터 全南大學校 師範大學과 關東大學에 地理教育科가 新設되어 大學에서의 地理教育에 보다 活氣를 띠우게 되었다.

(首都女師大 教授)

參 考 文 獻(註)

- 1) 李泳澤外 18人, 1969, 教育課程理論과 運營, p. 75.
- 2) 各 大學 및 大學院에서 發刊되고 있는 學術雜誌는 다음과 같다. (創刊年度順)
 - 서울대학교 師範大學, <地理>, 1959年 創刊, 2號로 中斷狀態.
 - 梨花女子大學校 師範大學, <綠友會報>, 1959年 創刊, 1975년까지 17號出刊.
 - 文理師大, <社生學報>, 1960年 創刊.
 - 建國大學校 文理科大學, <地理學報>, 1959年 創刊, 1973년까지 2號出刊.
 - 서울대학교 文理科大學, <駱山地理>, 1970年 創刊, 1975년까지 3號出刊.
 - 慶熙大學校 文理科大學, <地理學叢>, 1970年 創刊.
 - 서울대학교 教育大學院, <地理學과 地理教育>, 1973年 創刊, 1975년까지 5輯出刊.
 - 首都女子師範大學, <君子社會>, 1974年 創刊. 1975년까지 2輯出刊.
 - 清州大學, <上黨地理>, 1975年 創刊.
- 3) 各 大學 및 大學院에서 實施한 活動內容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 首都女子師範大學의 Symposium
 - 1970年度 <地理教育에 있어서의 問題點>
發表者; 金道貞, 邢基柱, 李 燦.
 - 1971年度, <韓國地理의 問題點>
發表者; 金道貞, 金蓮玉, 邊時敏, 邢基柱.
 - 1973年度, <都市地理의 問題點>
發表者; 朴英漢, 李漢淳, 尹定燮, 金仁.
 - 慶熙大學校 文理科大學에서 <全國大學 地理學科 Seminar>를 1972年 5月 20日 開催.
基調講演;
朴魯植, 韓國大學 地理學科의 現況과 方向
李 燦, 外國大學 地理學科의 動向
金道貞; 地理科 教科課程과 教材
李漢淳; 地理學의 應用과 社會參與
姜信浩; 地理學科와 中高等教育
洪始煥; 地理學科의 實習과 器材
 - 서울대학교 教育大學院에서 1974年 10月 19日 <大學入試地理問題 Seminar> 開催.
基調講演;
李 燦, 地理教育의 評價目的과 基準
發題講演;
姜信浩; 大學入試豫備考查出題에 關한 小考
金日基; 大學入試豫備考查問題에 關한 小考
黃敷璣; 大學入試地理問題出題
- 鄭瑋鎬; 大學入試地理問題出題
元慶烈; 大學入試地理問題에 關한 小考
- 4) 1965年 10月 25日 서울대학교 師範大學側 代表 (李燦, 李廷冕, 黃錫根, 鄭瑋鎬, 李琦錫)와 韓國地理教育會側 代表(申鉉德, 洪始煥, 李泳澤, 姜大玄)가 合同 協議 結果 原則의 으로 合併키로 合議한.
- 5) 「學習指導資料」에 掲載된 論文은 다음과 같다.
 1. 輯, 李 燦, 地圖와 地球儀, pp. 19~20.
 3. 輯, 李廷冕, 아프리카 動物의 地理의 生態, pp. 5~6.
 4. 輯, 金鎮冕, 三寒四溫, pp. 10~11.
李 燦, Monsoon에 對한 새로운 概念, pp. 22~25.
 6. 輯, 金相昊, 地理教育의 反省, pp. 7~9.
 7. 輯, 李廷冕, 아프리카의 焦點 알제리, pp. 28~30.
 8. 輯, 金相昊, 韓國의 土地利用과 農業地域區分, pp. 21~26.
 9. 輯, 金蓮玉, 地理教材로서의 氣候區, pp. 25~32.
- 6) 「地理學會報」에 掲載된 資料 및 論文은 다음과 같다.
 - 1 號 資料로서 水資源開發을 위한 四大江의 流域調査, 獨島와 間島歸屬에 關한 資料, 擴充을 거듭하는 우리나라 電力開發, 1969. 10. 31.
 - 2 號 金蓮玉, 氣候의 極地.
任德淳, 高等學校 地理에서의 政治地理學 分野
黃敷璣, Source Book for Geography Teaching (書評), 1970. 4. 20.
 - 3 號 鄭瑋鎬, 韓國의 交通發達.
李淑姬, 韓國의 高速道路, 1971. 5. 29.
 - 4 號 邢基柱, 國土開發計劃의 內容과 問題點,
市·郡別 面積·人口 一覽表 1971. 11. 5.
 - 5 號 李泳澤, 都市開發制限區域, 各種統計資料(國內, 國外), 1972. 11. 4.
 - 6 號 權赫在, 우리나라 河川의 流況과 河川地形, 1973. 4. 30.
 - 7 號 金道貞, 韓國의 火山地形, 1973. 11. 10.
 - 8 號 朴英漢, 世界의 石油資源——資源의 分布 및 生産·消費에 따른 提問——, 1973. 12. 20.
 - 9 號 李漢淳, 世界의 人口와 資源問題——世界人口의 階級 즈음하여——, 1974. 3. 20.
 - 10號 崔雲植, 우리 나라 行政區域의 變更과 統計資料, 1974. 5. 25.
 - 11號 任德淳, 大陸棚의 政治地理의 問題, 1974. 9. 20.
 - 12號 李賢英, 人類의 起源, 1974. 12. 28.
 - 13號 鄭瑋鎬, 카르스트 地形
洪始煥, 韓國의 洞窟, 1975. 5. 20.
 - 14號 朴東源, 우리나라 西海岸의 干潟地類型 (外國

- 의 干潟地와 比較하여서) 1975. 8. 25.
- 7) 金蓮玉, 1955, Pilot Course의 實際, 教育, 3號,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教育會, pp. 92~101,
 - 8) 金相昊, 1960, 社會生活科와 地理教育, 教育, 11號,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教育會, pp. 54~58.
 - 9) 崔外洪, 1962, 社會生活科와 地理의 效率의인 學習指導, 地理地質學報, 6輯, 慶南地理 地質學會, pp. 165~227.
 - 10) 元慶烈, 1963, 視覺教材로서의 地理模型의 製作法, 社會科教育, 創刊號, 韓國社會科教育會.
 - 11) 徐贊基, 1965, 大學과 關聯된 中學校 地理教育의 問題點, 教育研究誌, 4輯, 慶北大學校 師範大學, pp. 45~53.
 - 12) 李 燦, 1966, 地理教育의 諸問題, 只山先生華甲記念論文集, 只山先生華甲記念論文集刊行委員會, pp. 161~166.
 - 13) 秋誠求, 1967, 地理教育의 當面課題, 論文集, 5輯, 公州師範大學, pp. 43~51.
 - 14) 李 燦, 1968, HSGP를 通해서 본 美國의 地理教育 改革, 地理學, 3號, pp. 41~51,
_____, 1969, 地理教育의 改革運動, 새교육, 3, 4, 5月號 合併別刷
 - 15) 任德淳, 1969, 中學校 1學年の 地理教育, 研修院報, 第5卷 1號, 釜山教育大學附設 初等教員研修院, pp. 23~30.
 - 16) 姜信浩, 1969, 地理班의 特別活動을 通한 國際理解, 218페이지의 油印物.
 - 17) 任德淳, 1970, 國民學校地理教授方法에 關한 考察, 釜山教育大學 研究報告, 6卷 2號, pp. 51~89.
 - 18) 趙光濬, 1970, 社會科學學習過程의 改善, 教育研究, 3卷 7號, pp. 40~41.
 - 19) 張保雄, 1970, 開化期의 地理教育, 地理學, 5號, pp. 41~58.
_____, 1971, 日本統治時代의 地理教育, 群山教育大學 論文集, 4號.
 - 20) 金相昊, 1970, 地理教育論 序說, 研究論叢, 1輯, pp. 105~112.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教育會.
 - 21) 金鍾浩, 1971, 學習의 構造化에 依한 地理科 授業研究, 地理教育, 4卷 1號, 慶北大學校 師範大學 地理科 同窓會, pp. 7~9.
 - 22) 洪大善, 1971, 集團思考와 學習構造——社會科 地理學習을 中心으로 展開——, 地理教育, 4卷 1號, 慶北大學校 師範大學 地理科 同窓會, pp. 10~19.
 - 23) 徐贊基, 1971, 地理教室의 設計(1), 地理教育, 4卷 1號, 慶北大學校 師範大學 地理科 同窓會, pp. 32~60.
 - 24) 張彩奎, 1969, 社會科(地理分野)에 關한 考察——初中學校學習指導面을 中心으로——, 高麗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25) 金完鍾, 1969, 中學校地理分野의 檢討, 高麗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26) 金富植, 1972, 中等地理教育課程의 比較研究, 서울大學校 教育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27) 李清一, 1974, 地理教育課程에서의 人口教育의 研究——概念과 概念의 一般化를 中心으로——, 서울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28) 申圭東, 1972, 社會科 地理教育의 改善方向, 高麗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29) 芮庚熙, 1971, 解放以後 中高等學校 地理學習의 變遷——教科書分析을 中心으로——, 慶北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30) 趙光濬, 1972, 새교육課程에 依한 地域指導에 關한 研究, 45페이지에 이르는 印刷物.
 - 31) 朴恒男, 1972, 서울特別市의 騒音實態와 學習活動에 미치는 影響에 關한 研究, 서울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32) 李琴周, 1973, 完全學習理論에 依한 中學校地理學習의 事例研究, 梨花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33) 吳錦淑, 1973, 地圖읽기 能力測定을 爲한 檢査問項作成에 關한 研究, 梨花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34) 李恩淑, 1974, 高等學校 地理 I, II 農業單元의 評價事例研究, 서울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35) 徐贊基, 1965, 中學校 外國 地名 學習을 爲한 適正 地名의 研究, 慶北大學校 論文集(人文社會科學編), 第9輯, pp. 173~187.
 - 36) 鄭京淑, 1969, 外國地名에 對한 研究, 梨花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37) 宋泰鏞, 1965, 地理教科書에 使用된 地圖, 教育研究誌, 4輯, 慶北大學校 師範大學, pp. 1~12.
 - 38) 張保雄, 1969, 植民地時代의 地理教育——地理教科用圖書 內容變遷을 中心으로——, 42페이지의 油印物, 大韓地理學會 發表論文.
 - 39) 李 燦·姜信浩·朴煥伊, 1969, 社會科 地理領域 視聽覺資料作成을 爲한 教材分析研究, 教聯研究, 3號, pp. 55~60.
 - 40) 金蓮玉, 1970, 社會科教育內容의 構造와 概念에 關한 研究, 梨花女子大學校 韓國文化研究院 論叢, 15輯 pp. 247~272.
 - 41) 姜信浩, 1972, 地理教育의 基本概念과 高等學校 學生들의 地理概念에 對한 調查研究, 서울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42) 趙光濬, 1970, 國民學校 社會科地理의 教材構造의 研究, 서울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43) 任德淳, 1970, 高等學校地理에서의 政治地理學分野,

地理學會報, 2號, pp. 5~8.

- 44) 芮庚熙, 1971, 中學校地理學習內容의 分析, 地理教育, 4卷 1號, 慶北大學校 師範大學 地理科 同窓會.
- 45) UNESCO 韓國委員會, 1969, 國際理解教育을 爲한 社會科資料單元, 118페이지의 油印物.
- 46) 梁善子, 1972, 社會科 地理教育 資料 單元으로서의 日刊新聞에 關한 分析研究, 梨花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47) 黃載璣, 1966, 中學校“社會 1”教科書의 內容分析, 서울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48) 元慶烈, 1972, 中學校 社會 1 教科書를 통한 地理用語의 分析研究, 서울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49) 朴慶姬, 1975, 中學校 사회 1 教科書의 內容分析, 梨花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50) 鄭璋鎬, 1971, 現行高等學校 地理(I) 自然單元의 內容分析, 論文集, 3號, pp. 245~263, 首都女子師範大學.
- 51) 權赫在, 1974, 韓國의 河川과 沖積地形——中高校의 地理교육과 關聯하여——, 教育論叢, 高麗大學校 教育大學院, 1輯, pp. 75~92.
- , 1975, 韓國의 海岸地形과 海岸分類의 諸問題——中高校의 地理교육과 關聯하여——, 教育論叢, 高麗大學校 教育大學院, 3輯, pp. 73~88.